

9/2/18

설교 말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1 장 12 절-12 장 14 절

- (호 11: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절관주** 왕하 17:4, 사 30:6
- (호 12: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 (호 12: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절관주** 호 4:1
- (호 12:3)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 (호 12:4)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벳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절관주** 창 32:26, 창 28:13-15
- (호 12:5) 여호와만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만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절관주** 출 3:15
- (호 12: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 (호 12:7)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 (호 12: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 (호 12:9)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 (호 12: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 (호 12:1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발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 (호 12:12)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절관주** 창 28:5, 창 29:20

(호 12:13)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절관주** 출 11:1, 출 14:19-22

(호 12:14)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본문은 11 장 마지막 절부터 12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1 장 말씀을 나눌때 마지막 절인 12 절을 빼고 12 장 말씀을 나누면서 넣은 것은 내용면에서 그렇게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절이 12 장 1 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1 장 말씀을 나눈지 몇 주가 지난터라 기억을 돕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아픔 그리고 연민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8 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호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인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불 같은 사랑으로 가슴에 품어 주시는 그 사랑에 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대로 나의 옛 사람을 온전히 벗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새 생명과 옛 사람 간에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정신차리지 아니하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하여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호세아 11: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궤홀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궤홀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북 이스라엘이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금송아지와 바알 등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 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북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단과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북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벧엘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남 유다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다고 죄를 지적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남 유다도 북 이스라엘 보다 조금 낫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호 12: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으며'라는 말은 북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앗수르의 도움을 얻으려고 헛되이 뛰어다니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불어 닥치는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의 열기를 몰고 와서 식물을 태우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부수는 등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풍을 따라가서'란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위급한 상황을 맞아 앗수르와는 조약을 맺었고 동시에 앗수르의 대적인 애굽에다가는 기름을 뇌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짜낸 양다리 외교 정책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울무에 걸리게 하여 결국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동족을 철저히 짓밟았으며 하나님 대신 강대국인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남 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음란한 고멜과 같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 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호 12: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유다와 논쟁하시고'라는 말은 유다의 죄에 대해 논쟁하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전에 용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남 유다가 아직은 북 이스라엘보다 덜 부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남 유다도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할 경우 북 이스라엘과 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종국에는 멸망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언급합니다.

(호 12:3)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과 다투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후에는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인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늙어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까지 속여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만 했던 장자 축복까지 가로챈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압북 나루에서 환도뼈가 다쳐서 어긋나는 고통까지 겪으며 천사와 겨루어 이겨냈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냅니다.

(호 12:4)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 형이 두려워 외삼촌 라빈이 살고 있는 아람으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장가를 들어 자식을 낳고 20 여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가는 도중 형 에서가 400 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는 압복강 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의 회개를 보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으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개명해 주셨습니다.

이름대로 야곱은 '간교하며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야곱을 언급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야비한 짓을 했을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베푸어 주신 사실을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북 이스라엘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 12:5)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와 히브리어로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대로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음받지 않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 12: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자시니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라고 호소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 즉 사람을 사랑하며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삶을 지적합니다.

(호 12:7)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저울을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호 12: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통해 재산을 모으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부자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호 12:9)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낸 당신을
배신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 광야 때처럼 다시 장막에 거하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호 12: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상으로 경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12:1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발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의 제단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 12:12)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형을 속이고 두려워 외삼촌 집이 있는 아람으로 피신을 갔던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20 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이 있는 아람으로 도망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외삼촌을 섬기며 20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호 12:13)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호 12:14)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430 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따르며 몰렉에게 제사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장자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버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할 수 없이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 뜨겁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 속히 당신께로 다시 돌아 오라고 그러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갈망하며 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복 받으려고 도대체 어디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그 복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